

## 博士學位論文

# 陳修園의 生涯와 學術淵源에 관한 研究

崔台熙·尹暢烈

大田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 對陳修園의 生涯及 學術淵源의 研究

崔台熙·尹暢烈

大田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通過對陳修園의 生涯及 學術淵源의 研究, 得出如下結論. 陳念祖(1753-1823), 字修園, 良友, 號慎修. 福建省長樂縣江田鄉溪厝村人, 爲清代著名의 醫學家. 他不僅是一位學識淵博, 醫理嚴緊의 醫學理論家, 又是一位有着豐富臨床經驗의 臨床醫家. 他在一生中, 執筆撰寫了許多醫學普及著作. 他在學術上主張尊經復古, 尤其崇仰神農, 黃帝, 仲景等傳世聖賢, 併以『內經』, 『神農本草經』, 『難經』, 『傷寒論』, 『金匱要略』等經典作爲理論基礎, 著述了現今廣爲流傳的, 有價值的醫學著作. 陳修園의 主要代表著作有『傷寒論淺注』, 『傷寒眞方歌括』, 『長沙方歌括』, 『醫學三字經』, 『醫學實在易』, 『醫學從衆錄』, 『傷寒醫訣串解』, 『靈素節要淺注』, 『金匱要略淺注』, 『金匱方歌括』, 『神農本草經讀』, 『景岳新方砭』, 『女科要旨』, 『時方妙用』, 『時方歌訣』, 『十藥神書注解』等十六部.

關鍵詞: 陳修園, 陳念祖, 『靈素節要淺注』, 『傷寒論淺注』.

實踐의 反復을 통하여 後代로 내려오게 되었다. 『黃帝內經』은 『素問』과 『靈樞』로 構成되어 戰國時代 以前의 모든 醫學의 인 知識과 數千年間의 累積된 醫學經驗을 黃帝와 岐伯이 問答形式으로 總結하여 韓醫學理論의 基礎를 다져 現在까지 韓醫學의 最高의 經典으로 崇仰받고 있다.

『黃帝內經』이후에는 東漢時代의 『難經』이 있는데 『黃帝內經』중에서 論難이 되는 問題를 提起하여 說明한 著作으로 『黃帝內經』과 더불어 韓醫學理論의 基礎를 다졌다. 東漢末期에 張仲景이 『內經』理論을 根據로 하고 當時의 有效驗

## 1. 緒 論

韓醫學은 數千年間의 悠久한 歷史속에서 發展하여 그 固有한 理論과 治法으로 人間을 疾病으로부터 지켜주었고 現在에도 보다 나은 疾病의 治愈와 人類의 健康을 위해서 不斷한 研究와 發展을 繼續하고 있다.

韓醫學의 醫學理論과 臨床의 發展은 『黃帝內經』과 『難經』, 그리고 『傷寒雜病論』의 三書를 基礎로 하여 이루어져 이후 諸家들의 研究와

方を 널리 求하여 『傷寒雜病論』을 著述하여 韓醫學의 辨證施治를 體系化하고 臨床醫學의 基礎를 다져 『傷寒論』과 『金匱要略』으로 現在까지 傳해지고 있다. 따라서 韓醫學은 理論에 있어서는 『內經』과 『難經』을 中心으로 繼承發展하였고 臨床醫學에 있어서는 『傷寒論』과 『金匱要略』을 中心으로 發展을 하게 되었다.

그 후 『傷寒雜病論』과 『內經』은 많은 醫家들에 의해서 研究되고 實踐되어 오면서 理論이 더욱 體系化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理論들이 創案되었으니 자신들만의 獨特한 理論을 主張하여 韓醫學發展에 많은 貢獻을 한 醫學流派들이 形成되었다. 傷寒學派를 비롯하여 易水學派, 河間學派 및 金元四大家 등이 出現하였고 明代에는 溫補學派가 出現하여 各各의 學派들은 서로의 理論을 體系化하고 定立하여 韓醫學理論의 精密한 研究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清代에 이르러서는 考證學의 發達로 因하여 復古主義思想이 盛行하였고 實用의 學問을 重視하게 되어 臨床醫學이 크게 發展하게 되었는데 醫學界에 있어서도 尊經學派와 溫病學派의 兩大學派가 形成되었다.

이러한 時期에 影響을 받은 陳修園은 尊經學派의 代表인 人物로서 尊經崇古의 復古인 學風을 지닌 醫學家로 醫學의 源流를 重視하여 『內經』 『難經』 『神農本草經』 『傷寒論』 등의 古典을 매우 崇尚하여 깊이 研究分析하였으며 이러한 理論을 바탕으로 豊富한 臨床實踐을 가진 臨床醫로 일생동안 많은 著作을 남겼다.

이에 著者는 陳修園의 生涯와 醫學淵源을 『陳修園醫學全書』를 中心으로 研究하여 얻은 바를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陳修園의 生涯

陳念祖의 字는 修園 또는 良友이며 號는 慎修

로 福建省 長樂縣의 江田鄉 溪厝村 사람이다. 1753年(乾隆 18年)에 出生하여 1823年(道光 3年)에 생을 마쳤으니 향년 71歲였다<sup>1)</sup>.

陳修園은 일찍이 4歲에 부친을 여의고 집안 형편이 빈궁하였다. 어려서 조부인 陳居廊(字는 天弼)을 따라 經史를 熟讀하고 아울러 醫學을 공부하였다. 陳修園의 天性은 매우 민첩하고 총명하여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對句에 능하여 어려서부터 단연히 두각을 나타내어 20歲에 諸生으로 선발되었다. 가정생활의 困難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醫學에 뜻을 두고 깊이 연구하고 꾸준히 공부하여 24歲에 이미 醫業을 행하여 생계를 꾸려나갔다. 당시의 사회는 醫學을 輕視하는 경향이 있어 陳修園은 자신이 처한 環境을 개선하려고 “半은 과거를 보기 위해 힘쓰고 半은 醫業을 위해 힘쓰자”<sup>2)</sup>라고 결심하여 張仲景처럼 醫업과 官직을 반반씩 겸한 길을 걸었다. 陳修園은 당시의 醫家들

1) 林慧光 主編, 陳修園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1097.

구체적인 生卒연대는 정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기가 1753년에서 1823년이다. 다른 책에서의 生卒연대는 다음과 같다.

① 陳大舜 主編, 中醫各家學說, 湖南科學技術出版社, p.32.

1736년에서 1820년에 生卒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生卒연대는 자세히 알 수 없음.

② 裘沛然 丁光迪,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 102.

1766년에서 1833년에 生卒하여 향년 68세이다.

③ 姜春華 編著, 歷代中醫學家評析,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p.275.

“陳念祖 字修園(公元 1753~1823年) 福建長樂人 乾隆五十七年舉人”

④ 李經緯 林昭庚 主編, 中國醫學通史(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9. p.684. 1766년에서 1823년에 生卒하였음.

⑤ 劉祖貽 孫光榮 主編, 中國歷代名醫名術,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1211. 1753년에서 1823년에 生卒하였음.

2) 林慧光 主編, 上揭書, p. 1097.

“半治學子業 半治刀圭家(刀圭는 醫業을 지칭한다)”

이 唐宋以來로 各家의 方書만을 고집하고 古聖先賢이 相傳한 『內經』, 『難經』, 『神農本草經』, 『傷寒論』, 『金匱要略』 등의 古典을 소홀히 하여 익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醫道가 망가지게 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이에 고전을 潛心하여 깊이 연구하고 특히 張仲景의 학문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sup>3)</sup>.

陳修園은 成年시절에 兼하여 醫學에 從事하여 鄉里에서는 醫業을 行하여 病을 다스려서 功名을 얻었고 여전히 儒學을 공부하였으니 福州의 鰲峰書院에서 受學하였다. 山長 孟超然을 따라 經史를 배웠으니 그의 스승인 孟先生은 進士出身으로 또한 醫學에도 精通하였으니 儒와 醫가 兼通한 志士로 陳修園의 勤勉하고 聰慧함을 보고 그의 才能을 살려 더욱 발전시켰다<sup>4)</sup>. 이후에 泉州의 淸源書院에서 講學을 하고 당시에 그 지방의 名醫인 蔡宗玉(茗莊)에게서 醫學을 배웠다. 蔡宗玉은 當代에 四方에 이름을 드날린 名醫로 『醫學滙參』과 『六經傷寒辨證補方』 등의 著書가 있어서 널리 유전되어 큰 영향을 미쳤으니 陳修園은 이를 좇아 그의 醫學을 私事하여 醫術이 날로 精深하여지고 造詣가 깊어지게 되었다<sup>5)</sup>. 1792년(乾隆 57年)에 鄉試<sup>6)</sup>에 합격하고 이듬해에 北京에서 과거 시험을 보았으나 進士에는 합격하지 못하였고 北京에 머물면서 醫院을 개업하여 환자를 진찰하였다. 當時에 光祿寺 刑部郎中 伊雲林이 中風을 앓아서 人事不省하고 手足癱瘓하여 미음도 이미 십여 일 동안 먹지 못하였는데 都城의 명 의들이 모두 不治라고 하였으나 陳修園이 大劑

세 劑로 일어나게 하여 이름을 일시에 떨쳤으니 이 일로 인하여 진료를 받으러 온 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다음 해에 文華殿 大學士 和珅이 足痿를 앓아서 조정에 나가지 못하여 陳修園에게 진료를 청하였는데 陳修園은 개를 죽여 껍질을 취하여 약과 함께 환부를 감싸게 하니 십여 일 후에 和珅이 낫게 되었다. 이러한 狗皮膏의 제조법은 바로 陳修園이 전수한 것이다. 和珅은 병이 재발할까 염려하여 太醫院 관직을 주어 억지로 그의 집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려하자 1793년에 陳修園은 완곡히 辭讓하고 병을 핑계삼아 남쪽으로 돌아갔다. 이 일로 和珅에게 죄를 얻어 두 번이나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였다. 1800년(嘉慶 5年)에 이르러 和珅이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陳修園이 겨우 다시 北京에 가서 과거 시험에 응했으나 끝내 합격하지 못하였다. 嘉慶 6年에 大挑(세 번 이상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과거 응시생중에 제일 뛰어난 자를 뽑아서 知縣으로 임명하는 것)로 뽑혀서 陳修園은 縣令이 되었다.

陳修園이 벼슬길에 발을 들여놓아 처음으로 直隸州(河北省의 옛 이름) 保陽(지금의 保定市)에 이르렀다. 다음 해에 華北 지방에 폭우로 재해가 생겨서 그는 恒山의 재해를 감찰하라는 命을 받았는데, 당시 恒山은 瘟疫이 유행하였으니 陳修園은 한편으로는 조직적으로 재해를 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을 위해 치료하여 活人의 공이 많았으니 차례로 河北省의 磁縣, 棗強縣, 威縣의 知縣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母親喪으로 인하여 관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후 1808년 봄에 다시 관직에 나갔으니 그는 백성의 병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매우 좋은 소문이 났으며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승진하여 곧 또 다른 곳을 겸임하게 되었으니 嘉慶 22年(1817年)에 直隸州 知州에 승진하고 다음 해에는 正定府 知府를 代理하였다.

3) 裘沛然 丁光迪, 中醫各家學說, p. 102.

4) 劉祖貽 孫光榮 主編, 中國歷代名醫名術,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1212.

5) 李經緯 林昭庚 主編, 中國醫學通史(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1999. p.684.

6) 鄉試: 과거의 제 1차 시험으로 3년에 한번씩 각 성에서 실시되었음. 합격자는 舉人의 칭호가 주어지며 禮部에서 행하는 會試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짐

陳修園이 벼슬길에서 浮沈하여 십여 년의 긴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도 오직 岐黃의 학문(의학)을 잊지 않고 연구하였으니 그는 “文章으로 報國하는 것은 오히려 天命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거나 능히 良醫가 되는 것은 活人할 수 있는나에 따른 것이다.”<sup>7)</sup>라고 생각하였다.

陳修園의 대부분 醫學著書는 그가 관직에 있는 기간동안 저술한 것으로 『南雅堂醫書全集』이라 하며 또 이름하기를『公餘十六種』이라 하였다.

陳修園은 자연스럽고 대범하기가 徐靈胎 같았고 초탈하기가 葉天士와 같았으며 호탕하고 명랑하기가 薛一瓢<sup>8)</sup>와 같았다. 그는 관직에 취임해서는 공적을 쌓고 이름을 알렸으나 이는 단지 그가 좋아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항상 의술을 행하여 濟人하고 救世하는 것을 생각하여 잊지 않았으니 나라의 官吏이기도 하며 또한 醫師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내 醫術로서 세상에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陳修園은 소년시절에는 스스로 자기가 홀륭하다고 생각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였으나 산에서 나온 이후에는 태도를 바로잡아 뛰어난 재능을 드러내지 않으며 대단히 겸손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많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안목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學問이 깊고 意志와 氣概가 平凡하였으니 이것이 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嘉慶 24年(1819年)에 陳修園은 나이가 많음을 인하여 고향에 돌아가기를 고하였으니 이때 나이가 66세이다. 복건성으로 돌아온 후 福州에 있는 嵩山井上草堂에서 한편으로는 학문을 가르치고 한편으로는 저술에 집중하여 부지

런히 쉬지 않았으니 의학을 공부하고자 청하여 오는 이가 있으면 그는 반드시 먼저 자신이 쓴 『傷寒論淺注』와 『金匱要略淺注』 양 책을 주어 문학생들이 중요한 법을 얻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醫學教授를 할 때 門弟子가 매우 많았는데 뛰어난 자로 薛步雲, 何鶴齡, 林士雍, 汪桂, 周易圖 등이 있다<sup>9)</sup>.

陳修園의 祖父는 名은 居廬이고 字는 天弼로 博學하고 醫術에 能하였으며, 父의 名은 廷啓이고 號는 二如로 陳修園이 어렸을 때 일찍 죽었다. 陳修園의 長子는 元豹로 이름은 尉, 字는 道彪 또는 古愚이며 次子는 元犀로 字는 道照 또는 靈石이며 그의 孫子인 心典의 字는 徽庵이며, 心蘭의 字는 芝亭으로 모두 父業을 계승하여 陳修園의 醫學著作을 정리하고 출판하는데 힘썼다<sup>10)</sup>.

## 2. 陳修園의 著書

陳修園은 清代의 저명한 醫學家로서 學識이 淵博하고 醫理가 精密하여 醫學理論家이면서도 풍부한 臨床經驗을 갖춘 臨床家로서 일생동안 많은 의학보급서적을 집필하였으니 그의 저서는 醫學理論에서부터 臨床實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대하여 언급되어 후세에 자못 큰 영향을 미쳤다<sup>11)</sup>. 특히 그의 思想은 다분히 復古主義的인 기풍이 짙어 神農과 黃帝와 仲景을 尊重하여 『內經』, 『神農本草經』, 『難經』, 『傷寒論』, 『金匱要略』 등의 聖經을 중심으로 모든 이론의 기초를 삼아 尊經에 의거한 著述을 하였다.

陳修園은 또한 『傷寒論』의 大家중의 한 사람으로 저작하거나 편집한 의서가 수십 종에 달하는데 그중 『傷寒論淺主』, 『傷寒眞方歌括』, 『

7) 林慧光, 上揭書. p. 1097.

“文章報國 尙挾知命而行 而能爲良醫者 隨在加以活人”

8) 薛一瓢 : 本名은 薛雪이고 字는 生白이며 吳懸人이다. 晩年에 淡泊한 생활을 즐겨 顔子의 樂이 있었으므로 一瓢라고 號하였다. 著書로는 『醫經原旨』6卷이 있다.

9)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p.332.

10) 裘沛然 丁光迪, 中醫各家學說, 人民衛生出版社. p.102.

11) 傅維康, 中國醫學史, 上海中醫學院出版社, 上海, 1990. p.468.

長沙方歌括』, 『傷寒醫訣申解』 등은 『傷寒論』의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다<sup>12)</sup>.

陳修園의 저작은 매우 풍부하여 23種, 32種, 48種, 50種, 70種, 72種이 있다고 하나 『南雅堂醫書全集』 또 다른 이름인 『公餘十六種』이 실로 陳修園이 저술한 것으로 또한 『陳修園醫書十六種』이라 하여 후세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傷寒論淺注』, 『醫學三字經』, 『醫學從衆錄』은 後代에 流傳함이 가장 廣大하고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陳修園의 醫學著書는 그 간행되고 인쇄된 판본이 많아 中國醫學史에 있어서 첫손가락에 꼽힐만하다 칭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긍정적인 저작들은 아래와 같다. 이에 필자는 『陳修園醫書十六種』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각각의 책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靈素節要淺注』

清代의 同治 4年 乙丑年(1865年)에 완성되었고 총 12권 18편으로 되어 있으며 『靈素集注節要』라고도 불린다.

陳修園이 직접 『靈樞』와 『素問』의 내용중 값지 않은 성질을 분류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채용하여 성질에 따라 道生, 臟象, 經絡, 運氣, 望色, 聞聲, 問察, 審治, 生死, 脈診, 病機 등 十一類로 나누어 기술한 책이다. 滑壽와 張介賓이 쓴 책들의 내용을 선택하여 실었고 注의 내용은 張志聰의 설명을 선택하였고 그 사이에 부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실었다. 經旨를 천명하고 간단히 자신의 생각을 兼하여 언급하여 후학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案內役割을 해주는 독보적인 몇 안 되는 책으로 『內經』을 공부하는데 있어 좋은 參考書籍이라고 할 수 있다.

『靈素節要淺注』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sup>13)</sup>.

12) 金容辰의 9명, 各家學說(中國篇), 대성의학사, 서울, 2001. p.74.

『陳修園醫書』諸種本

『南雅堂醫書全集』

清 敦厚堂刻本(題目은 『靈樞提要淺注』라 하였음.)

清 光緒22年 丙申(1896年) 珍書藝局鉛印本(제목은 『靈樞素問集注』라 함.)

1919年 頤性室錄印本

② 『金匱要略淺注』

清代의 嘉慶 25年(1820年)에 완성되었고 전서는 모두 10권 25편으로 되어 있다.

陳修園이 『內經』, 『傷寒論』, 『千金方』, 『外臺秘要』 등의 책과 明·清代의 諸家들의 精華에 이르기까지 풍부하게 채용하여 『金匱要略』各篇의 經文들에 襯注法을 사용하여 단계에 따라 설명하였고 그 精髓를 闡發하여 『金匱要略』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되어 후세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쳤으니 清代의 唐宗海가 『金匱要略淺注補正』과 『傷寒論淺注補正』을 저술하여 陳修園의 學說사상을 더욱 발전시켰다.

『金匱要略淺注』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sup>14)</sup>.

『陳修園醫書』諸本

清·道光10年 庚寅(1830年)刻本

清 道光16年 丙申(1836年)刻本(附『金匱歌括』6卷)

清 道光17年 丁酉(1837年)南雅堂刻本

清 咸豐5年 乙酉(1855年)重慶書業堂校刊本

清 同治8年 己巳(1869年)緯文堂刻本

清 同,光間佛山鎮翰文堂刊本

清 光緒15年 己丑(1889年)光裕書屋刻本

清 光緒18年 壬辰(1892年)圖書集成印書局鉛印本에 公餘醫錄16種이 보인다.

13)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126.

14)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681.

清 光緒21年 乙未(1895年)聚和堂校刊本  
 清 光緒22年 丙申(1896年)珍藝書局鉛印『陳修園醫書』21種의 單行本  
 清 光緒29年 癸卯(1903年)湖南益元書局刻本  
 清 光緒34年 戊申(1908年)寶慶經元書局校刊本  
 坊刻本(題目이 回春集金匱淺注라고 하였음)  
 精抄本(王羲相이 刪潤하였음)  
 1916年 上海光益書局石印『陳修園醫書』72種의 單行本  
 1935年 上海三星書店石印本  
 石印本  
 1936~1939年 上海大文書局鉛印本  
 世界書局鉛印本  
 1958年 上海科技衛生出版社鉛印本  
 待鑒定本

③ 『金匱方歌括』

清代의 道光 10年(1830年)에 완성된 책으로 全書는 6권으로 나누어지고 歌括 166首로 되어있다.

『金匱方歌括·凡例』에서 이르기를 “每方마다 歌括의 뒤에 반드시 方解를 더했으며 간간이 治法과 方法을 두었다.”<sup>15)</sup>라 하였고 또한 “前賢名言精論 千古不磨者 本集或于歌中 或于注中 採集不遺 間有未愜於心者 取原文細繹其旨 求其合於內經 又與難經之言相爲表裏 參之千金外臺之說相發明者 而後補注之”<sup>16)</sup>라 하여 각각의 方에 먼저 『金匱要略』 原文을 인용하고 다음으로 歌括을 실었으며 方解를 맨 뒤에 실었다. 그리고 千古不變의 聖賢들의 이론을 모두 빠뜨리지 않고 채집하여 收錄하고 그 사이사이에 부수적으로 자신의 見解나 治驗을 넣었다. 醫書에 나타난 말은 비록 卑近하지만 뜻은 깊고 내용은

더욱 화려하고 빼어나서 의학계가 더욱 무성하게 되었으니 그 내용이 아주 훌륭하면서도 통속적이어서 누구나 다 읽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金匱方歌括』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sup>17)</sup>.

『陳修園醫書』諸本  
 清 道光16年 丙申(1836年)南雅堂刻本  
 清 咸豐5年 乙酉(1855年)重慶書業堂校刊本  
 清 同,光間佛山鎮翰文堂刊本  
 『公餘醫錄』16種  
 『南雅堂醫書全集』  
 清 光緒22年 丙申(1896年)珍藝書局鉛印『陳修園醫書』21種의 單行本  
 清 光緒29年 癸卯(1903年)湖南益元書局刻本  
 清 光緒34年 戊申(1908年)寶慶經元書局據湖南益元書局本重刻  
 清末文林堂刻本  
 清刻本  
 1916年 上海光益書局石印『陳修園醫書』72種의 單行本  
 1935年 上海三星書店石印本  
 上海鴻文書局石印本  
 上海錦章書局石印本

④ 『傷寒論淺注』

清代의 嘉慶 1年(1796年)에 완성되어 全書는 모두 6卷, 397節이다.

卷一은 凡例, 讀法, 張仲景自序, 辨太陽病脈症으로 총 41節로 되어 있고, 卷二는 辨太陽病脈症으로 총 81節로 되어 있으며, 卷三은 辨太陽病脈症 59節, 卷四는 辨陽明病脈症 80節, 卷五는 辨少陽病脈症 10節, 辨太陰病脈症 8節, 辨少陰病脈症 45節로 구성되었고, 卷六은 辨厥陰病脈症 55節, 辨霍亂病脈症 11節, 辨陰陽易差

15) 陳修園, 金匱方歌括, 陳修園醫書五十種, 臺北, 新文豐出版有限公司, 1979. p.384.

“每方歌括之後 必加方解 間有治法方法”

16) 陳修園, 上揭書. p.384.

17)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679.

後勞復 7節, 痙濕喝篇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張志聰, 張錫駒가 나누어 놓은 문장의 절을 따라서 六經의 諸篇에 注를 달아 勞復에 이르러서 그쳤으니 平脈, 辨脈, 傷寒例, 諸可不可 등의 篇은 王叔和가 增作한 篇으로 다 그대로 두되 論하지 아니하고 오직 張仲景의 원문에 대해서만 주를 달아 놓았으니 『傷寒論』의 397節은 각각의 一節마다 一法을 이룬다고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별도로 體例를 만들고 簡明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자를 채택하여 원문의 가운데에 작은 글씨로 襯注를 가해 뜻이 일목요연하고 명백하게 하였으며 또한 매번의 一節의 뒤에 그 법이 있는 곳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傷寒論』의 정신에 근거하여 節마다 一段으로 하여 '按', '述', '引' 등의 형식을 채용하여 종합적으로 평론하니 經義를 通暢하게 하여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익히고 외는 데 즐겁게 하였다. 그리하여 “淺”자라는 글자에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다.

本書의 特徵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傷寒論』 經文의 完整性을 重視하였으며 章을 갈라서 句를 나누는 錯簡重訂派를 反對하였다.

㉡ 寒症과 熱症에 모두 直中이 있다는 學說을 提示하였으니 直中이 모두 寒症이라는 세상의 通論은 그릇된 것이라 認識하여 直中の 病은 寒熱二氣의 變化에 의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 張志聰과 張錫駒 二家가 傷寒論을 研究한 學說을 遵하여 五運六氣의 原理를 使用하여 六經病을 闡發하였고 아울러 內經의 標本中氣의 學說을 運用하여 六經의 傳變을 解釋하였다.

『傷寒論淺注』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sup>18)</sup>.

『陳修園醫書』諸本

清 嘉慶25年 庚辰(1820年)刻本

- 清 道光間刻本
- 清 同治元年 壬戌(1862年)經綸堂刻本
- 清 同治元年 恭壽堂刻本
- 清 同治6年 丁卯(1867年)善成堂刻本
- 清 同治8年 己巳(1869年)廣州同文堂刻本 (附『長沙放歌括』)
- 清 光緒15年 己丑(1889年)江左書林刻本
- 清 光緒22年 丙申(1896年)珍藝書局鉛印本
- 清 光緒24年 戊戌(1898年)善成堂意記刻本
- 清 光緒27年 辛丑(1901年)三味書局刊本
- 清 光緒34年 戊申(1908年)寶慶經元書局校刊本
- 又同年福記印本
- 『醫學初階』
- 清刻本
- 漢文書局刻本
- 益元書局刻本
- 漁古山房刻本
- 抄本
- 1935年 上海三星書店石印本
- 石印本
- 1938年 上海大文書局鉛印本
- 上海世界書局鉛印本

⑤ 『長沙方歌括』

清代의 嘉慶 13年 戊辰(1808年)에 완성되었으며 6卷으로 되어 있고 歌括은 112首가 있다. 全書는 方名으로 綱을 삼았고 每首의 湯方아래에 먼저 『傷寒論』원문을 끌어 놓고 그 처방의 主治 病證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조성약물과 用量 및 煮服法을 실었다. 詩歌형식을 따라서 내용을 표현했으며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요점을 밝혀 기억하고 암송하기에 쉽게 하였다. 맨 뒤에는 按語를 더하여(그 중 반 이상은 陳蔚이 加한 것임) 주요한 方義를 밝히고 분석하여 독자가 능히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568.

『長沙方歌括』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sup>19)</sup>.

- 清 嘉慶13年 戊辰(1808年)天祿閣刊本
- 南雅堂家刻本
- 『陳修園醫書』諸種本
- 『公餘醫錄』十六種本
- 『韓園醫學六種』本
- 清 同治5年 丙寅(1866年)古吳潘氏刊本
- 清 光緒10年 甲申(1884年)江西書局刊本
- 清 光緒14年 戊子(1888年)重刊本
- 清 光緒22年 丙申(1896年)珍藝書局鉛印『陳修園醫書』21種의 鉛印單行本
- 清 光緒29年 癸卯(1903年)湖南益元書局刻本
- 清 光緒30年 甲辰(1904年)上海經香閣書莊石印本
- 清 光緒33年 丁未(1907年)巴蜀善成堂校刊本
- 清 光緒34年 戊申(1908年)寶慶經元書局刊本
- 清 文林堂刻本
- 漁古山方刻本
- 文奎堂刻本
- 清刊本
- 1916年 上海光益書局石印『陳修園醫書』72種의 鉛印單行本
- 1935年 上海三星書店石印本
- 南務印書館陳修園醫書40種의 鉛印單行本
- 『南雅堂醫書全集』單行本

⑥ 『醫學實在易』

清代의 道光24年(1844年)에 완성되어 총 8卷으로 되어 있다.

本書는 한 편의 綜合的인 醫書라고 할 수 있으니 理論에서부터 臨床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논술되어 있다.

一卷은 臟腑易知, 經絡易知, 四診易知, 運氣易知의 四節로 구성되어 한의학의 기초이론과 지식에 대하여 簡述하였고, 二卷에서 四卷까지

19)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575.

는 表證, 裏證, 寒證, 熱證, 實證, 虛證 等の 각각의 형태의 疾病의 發生과 發展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고 每번의 病의 끝에 歌訣로써 要領을 표시하여 記憶에 편하게 하였다. 五卷에서 七卷까지는 상술한 諸類의 病에 대한 各類의 方劑를 실었고 더불어 方의 뒤에 各家의 本方方義資料를 기재하였다. 八卷에는 外備諸方을 더불어 채워 넣었다. 혹자들이 問기를 醫道가 심히 어렵거늘 어찌 책의 이름을 『醫學實在易』라 하였는가 하니 陳修園이 이 책의 凡例 중에서 말하길 “이 책은 『神農本草經』, 『內經』, 『難經』, 『仲景』, 『千金方』, 『外臺』, 『聖濟』, 『活人』 등 各 책의 精華와 元明代의 諸家와 그 당시의 賢人의 著作들을 채집하여 그 精粹만을 가린 것이 千百言이오 또한 당시의 比較적 알기 쉬운 말로서 표현하여 사람 사람마다 가히 같이 훤히 알 수 있도록 하니 그런즉 平소에 의학을 익히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우연히 病을 얻었을 때 증상을 보고 가히 약을 사용함에 실낱만큼도 틀리지 않도록 하여 그 妙理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sup>20)</sup>라고 하였으며 書中에 다시 “七言”으로 詩歌를 붙여서 初學者들이 읽기 쉽도록 하였다. 本書의 理法方藥은 모두 그 개념을 짧고 간단히 하여 그 뜻의 어려운 것을 후학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니 쉬우나 쉽지 않고 어려우나 어렵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름하기를 『醫學實在易』라 하였으니 가히 의학에 入門하는 지름길이 되도록 하는 책으로의 價値가 있는 것이다.

『醫學實在易』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sup>21)</sup>.

20) 林慧光, 上揭書. p.537.

“此書採集 神農本草經 內經 難經 仲景 千金 外臺 聖濟 活人各書之精華 及元明諸家 時賢著作 擇其粹者約千百言于尺幅之中 而又以時俗淺近之語出之 人人可以共曉 卽素未習醫 偶然得病 盡可按證用藥 絲毫不錯 妙在淺而易知也”

21)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南雅堂刊本

『陳修園醫書』諸種本

『醫學便覽』本

清 道光24年 甲辰(1844年)光華堂刊本

清 咸豐10년 庚申(1860年)三上堂刊本

清 光緒22年 丙申(1896年)珍藝書局鉛印

清 光緒29年 癸卯(1903年)湖南益元書局刻本

清 光緒33年 丁未(1907년)巴蜀善成堂校刊本

清 光緒34年 戊申(1908년)校刊本

清光緒間孫溪逸士刊本

漢文書局印本

漁古山方刻本

1935年 上海三星書店石印本

上海大文書局印本

1959年北京人民衛生出版社鉛印本

⑦ 『醫學從衆錄』

清代의 嘉慶24年(1819年)에 완성되었으며 全書는 8卷 40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內科雜病을 論治한 專門書籍으로 이 책에서 論한 바의 각 病症은 『內經』과 『難經』, 그리고 仲景의 學說要旨를 闡發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역대 醫家들의 經驗을 널리 取하고 여기에 자신의 見解를 添附하였다. 책의 內容은 簡明하여 명확히 요지를 찌르고 있고 깊이 파고들어 쉽게 설명했으며 論治를 함에 있어서는 偏狹된 것은 잘라내고 臨床에서 실용할 수 있는 適當한 治方을 선택하였다. 書中에 各各의 內科病의 辨證施治에 대하여 仲景의 論述을 引用하여 詳細히 설명하였고, 혹은 『傷寒論』과 『金匱要略』 중에 있는 方藥을 선택하여 病症을 治療하는 準則으로 삼았다<sup>22)</sup>.

內科의 常見病症과 아울러 婦人雜病의 辨治方法을 論述하였으니 各各의 病症에 먼저 病因과 病理와 治法의 개요를 서술하였고, 다음에

1993. p.3152.

22) 劉德榮, 『醫學從衆錄』論治內科雜病拾萃, 福建中醫藥, 1992年 3期. p.36.

診脈, 그 다음엔 方藥을 서술하였다. 그 변증의 방법은 모두 古訓을 遵하였으니 薛立齋, 王金壇, 趙養葵, 張景岳, 張石頑, 李時珍, 李士材, 喻嘉言 등의 八家의 說을 앞서 나열하고 仲師의 法을 뒤어 실어서 深奧한 뜻을 알기 쉽게 표현하였다.

書題를 『醫學從衆錄』이라고 名한 이유에 대해서는 長孫인 心典이 말하기를 “先大夫께서 長沙의 醫學을 이어 받아 일생동안 精力을 다하여 『傷寒論淺注』, 『金匱要略淺注』 등 책을 저술하였으며, 다시 餘力을 다해 長沙의 辨證法을 모으고 『千金方』과 『外臺秘要』 이하 諸方書 등을 더하여 『醫學從衆錄』 8卷을 執筆하였다. 대개 오로지 經에 나온 方만을 이용하여 衆人들을 위험하게 할까 하여 특별히 內容을 降하여 從衆이라 하였다.”<sup>23)</sup>라고 말하여 本서가 明明된 것이니 本서는 알기 쉬운 뿐만 아니라 實用的인 價値까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卷一은 眞中風症, 中風續論, 類中風症, 虛勞, 虛勞續論이 있고, 卷二는 咳嗽, 痰飲, 喘促, 哮症, 驚悸, 血症을 論하였고, 卷三은 遺精, 赤白濁, 癰閉五疝, 心痛, 腹中上下諸痛, 心痛續論, 嘔吐, 呃逆을 論하였으며, 卷四는 癰, 厥, 癲, 狂, 癩, 癱瘓, 癩症續論, 疝氣, 眩暈, 頭痛을 論하였고, 卷五는 隔症反胃, 瘧症, 痢症, 痢疾續論을 論하였으며, 卷六은 傷暑, 腫症, 脹症, 消渴, 腰痛, 自汗盜汗을 論하였고, 卷七은 泄瀉, 風痺痿, 鶴膝風, 脚氣를 論하였으며, 卷八은 婦人雜病方, 傷寒附法, 傷寒府法補를 論하였으며 婦人雜病方篇에서는 婦女의 月經不調, 崩漏, 閉經, 帶下, 妊娠病, 產後諸病 및 缺乳, 乳癰, 乳癖, 乳癆, 乳癌 등의 乳房疾患의 辨證治法을 論述하였으며, 傷寒附法과 傷

23) 陳修園, 醫學從衆錄, 陳修園醫書五十種. p.256.

“先大夫醫學宗長沙 一生精力在傷寒論淺注金匱要略淺注等書 復以餘力 集長沙辨證法 算取千金方外臺秘要以下諸方書 爲醫學從衆錄八卷 蓋恐專用經方之駭衆 特降而從衆也”

寒附法補는 雙解散, 防風通聖散, 柴葛解肌湯 등의 金元以來的 著名한 方劑들과 陳修園의 臨症經驗을 歌訣形式으로 紹介하였다.

『醫學從衆錄』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sup>24)</sup>.

- 『陳修園醫書』諸種本
- 清 道光25年 乙巳(1845年)刊本
- 清 道光間刊本
- 清 光緒34年 戊申(1908年)寶慶經元書局刊本
- 南雅堂藏板緯文堂發兌
- 1957年上海衛生出版社刊本

⑧ 『女科要旨』

清代的 道光 21年(1841年) 에 완성되었으며 全書는 모두 4卷으로 構成되어 있다.

一卷은 調經과 種子를 論하였고, 二卷은 胎前을 論하였고, 三卷은 産後를, 四卷은 雜病과 外科를 論하였으니 上述한 婦産科 疾患과 더불어 常見하는 外科 病證을 상세히 論述하였다. 『金匱要略』을 正法으로 삼아 巢元方, 陳自明, 朱丹溪 등 諸家의 說을 깊게 살피 지극히 자세히 하고 精밀하였다. 病機를 講解함이 간명하고 투철하며 附方을 실용적으로 選하였으니 한의 학의 婦人科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參考書가 될 만하다.

『女科要旨』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sup>25)</sup>.

- 清 道光20年 庚子에서 辛丑年(1840~1841年)南雅堂藏板
- 『陳修園醫書』諸種本
- 漁古山方刻本
- 清 光緒22年 丙申(1896年)珍藝書局校印陳

24)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3157.

25)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3963.

修園醫書21種單行本

- 清 光緒33年 丁未(1907年)巴蜀善成堂刻本
- 清大文堂刻本
- 清文英閣刻本
- 清恒文堂刻本
- 清益元書局刻本
- 清刻本
- 清石印本
- 民初印本
- 1935年 上海三星書店石印本
- 錦章書局石印本
- 上海大文書局印本
- 1959年 人民衛生出版社鉛印本

⑨ 『神農本草經讀』

清代的 嘉慶 8年(1803年)에 완성되었으며 全書는 4卷으로 構成되어 『神農本草經』의 上, 中, 下 365品 중에서의 常用하는 藥物 160種을 선택하여 수록하였다.

주요 약물에 대한 內容說明은 가까이로는 張志聰, 葉桂 兩家의 說을 取하였고 간간이 徐大椿의 說을 採用하여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었다. 全書는 『內經』의 뜻과 『傷寒論』의 法을 融會貫通하여 本草와 임상처방을 연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갖출 만한 가치가 있다.

『神農本草經讀』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sup>26)</sup>.

- 清 嘉慶8年 癸亥(1803年)檀花書屋刻本
- 清 同治7年 戊辰(1868年)備興堂刻本
- 清 光緒13年 丁亥(1887年)五福堂刊本
- 清 光緒15年 己丑(1889年)刻本
- 清 光緒27年 辛丑(1901年)新花三味書局刻本
- 『陳修園醫書』諸種本
- 桂雲堂刻本
- 漁古山方刻本

26)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1041.

漢文書局刊本

清 光緒32年 丙午(1906年)石印本

清 光緒34年 戊申(1908년)章福記石印本

民國閩佛山鎮翰文堂刊本

1935年 上海三星書店石印本

1937年 上海大文書局印本

上海會文書局石印本

圖書集成印書局鉛印本

文盛書局鉛印本

⑩ 『醫學三字經』

清代的 嘉慶 9年(1804年)에 완성되었으며  
全書는 4卷으로 구성되어 있고 29門으로 나누  
어져 있으며 163方이 실려 있다.

本書의 特徵은 三字歌訣로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註釋과 說明을 덧붙여서 독자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記憶하기 편하게 하였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記憶하기 편하게 함과 동시에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 책은 매  
우 중요한 醫學啓蒙讀本으로서 醫學의 普及과  
入門教育에 있어서 매우 鼓舞的인 作用을 한  
것으로 아주 중요한 實用價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卷一은 醫學의 發展史를 詳細하게 說明하였  
으니 『醫學原流』중에 『靈樞』, 『素問』, 『難經』, 『  
傷寒論』, 『金匱玉函經』, 『千金方』, 『千金翼方』,  
『外臺秘要』 및 金元四大家와 明, 清代의 著名  
한 醫家들의 主要學術特徵과 著作을 紹介하였  
고, 卷二는 中風, 虛勞, 咳嗽, 瘧疾, 痢症, 心  
腹痛胸痞, 隔食反胃, 氣喘, 血症, 水腫, 脹滿蟲  
脹, 暑症, 泄瀉, 眩暈, 嘔吐(呃逆), 癲狂, 五癩  
癰閉赤白濁遺精, 疝氣, 痰飲, 消渴, 傷寒瘟疫,  
婦人經產雜病, 小兒病 等の 臨床各科의 常見病  
들의 症狀, 診斷과 治療 등의 內容을 개괄적  
으로 서술하였으며, 第三과 卷四에서는 書中에  
서 說明한 各種의 病證에 대한 方劑를 소개하  
여 163方藥을 자세히 論하였으니 蓼附湯, 補  
中益氣湯, 二陳湯, 歸脾湯, 四物湯, 小建中湯,

六味地黃丸, 逍遙散, 保生無憂散, 人參敗毒散,  
神聖辟瘟丹, 蘇子降氣湯, 五皮飲, 清暑益氣湯,  
四神丸, 溫膽湯, 龍膽瀉肝湯 등의 名方과 『傷  
寒論』중의 모든 處方이 그 가운데에 수록되어  
醫者가 學習을 함과 또한 臨床에서 參考하여  
應用함에 도움을 주었으니 理論이 있으면 處方  
이 있고 仔細한 부분이 있으면 簡略한 부분도  
있고 藥물의 加減 運用 및 煎服의 方法까지도  
균등히 서술하였다. 또한 書中에 附錄으로 四  
卷末에 陰陽, 臟腑, 經絡, 및 望聞問切의 四診  
과 五運六氣 등의 韓醫學의 基礎理論의 要地를  
간명하게 說明하였으니 言語는 깔끔하고 정련  
되어 읽기와 기억하기에 편하게 되어 入門書로  
서 좋은 책이라 할 수 있다. 근 二百年 동안  
모두 30여 차례나 출판되어 대략 5년마다 再  
版되어 간행 次數와 版本이 매우 많으니 이는  
歷代로도 醫學著作중에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醫學三字經』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  
뻐하고 그로 인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받았으니  
그 내용이 실로 어려운 부분을 쉽게 설명하였  
으니 이로 인하여 醫學界가 더욱 발전하게 되  
니 실로 의학에 入門하는 좋은 入門서이며 또  
한 의학을 좀더 깊게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스  
승이자 친구와 같은 책이라 할 수 있다.

『醫學三字經』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sup>27)</sup>.

『陳修園醫書』諸種本

清 嘉慶9年 甲子(1804年)南雅堂刊本

清 嘉慶9年 甲子(1804年)經國堂重刊本

清 嘉慶9年 甲子(1804年)渝郡樂取堂重刊本

清 嘉慶9年 甲子(1804年)刊本

清 光緒27年 辛丑(1901年)新花三味書局校  
刊本

清 光緒33年 丁未(1907年)善成堂刊本

清 光緒34年 戊申(1908年)寶慶經元書局校

27)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3151.

刊本

清敦厚堂刻本

清巴川文淵閣版

友文堂版

『醫學便覽』

雙流張氏刊本

清刻本

刻本

抄本(有附錄一卷)

漢文書局校印本

鴻文書局石印本

廣益書局石印本

石印『陳修園醫書70種』單行本

1935年三星書局石印本

1939年大文書局印本

1954年錦章書局石印本

1956年人民衛生出版社影印本

1956年上海衛生出版社鉛印本

⑪ 『時方妙用』

清代的 嘉慶 8年(1803年)에 완성되었으며 전서는 4권으로 구성되었다.

第一券의 卷首에는 望, 聞, 問, 切의 四診의 要點과 中風, 癆症 등을 서술하였고 第二, 三, 四券에서는 歷代醫家와 陳修園의 개인적인 경험을 融合하여 42종의 常見病症의 病理, 症候와 治法, 方藥 등의 내용을 취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闡發하고 있다. 내용은 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臨床實用에 적합하게 하여 후학들의 귀감이 되었다.

『時方妙用』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sup>28)</sup>.

『陳修園醫書』諸種本

清刻本

味根齋小字本

友文堂藏本

清敦厚堂刻本

清稽古堂刻本

文奎堂藏版

清 光緒13年 丁亥(1887年)務本堂仿南雅書屋本刊行

清 光緒18年 壬辰(1892年)圖書集成印書局鉛印本

清 光緒22年 丙申(1896年)珍藝書局鉛印本

清 光緒27年 辛丑(1901年)新花三味書局校刊本

清 光緒34年 戊申(1908年)寶慶經元書局校刊本(即 三味書局版)

益元書局刊本

錦章書局石印本

⑫ 『時方歌括』

清代的 嘉慶 8年 辛酉(1801年)에 완성되었으며 全書는 상하 2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唐·宋 이후의 常用方劑 108首를 收錄하고 성질에 따라 補可扶弱, 重可鎮怯, 輕可去實, 宣可決壅, 通可行滯, 泄可去閉, 滑可去着, 澀可固脫, 濕可潤燥, 燥可去濕, 寒能勝熱, 熱可制寒 등의 十二類로 나누어 各方의 造成, 主治, 藥理, 加減에 대하여 一一이 해설하였다. 全書는 이치를 간명히 요약하였으며 文字 역시 쉽고 世俗에 통할 수 있게 하였고 歌訣 역시 명량한 운율이라 한의학의 初學者들에게 적절한 참고가 될만하다.

『時方歌括』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sup>29)</sup>.

『陳修園醫書』諸種本

清文奎堂藏板本

清友文堂藏板本

清檀藹書屋重刻本

28)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3147.

29)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3146.

清桂菴藏板本  
 清稽古堂刻本  
 清 光緒22年 丙申(1896年)珍藝書局鉛印本  
 清 光緒石印本(後附『景岳新方砭』)  
 經元堂刊本  
 益元書局刊本  
 文苑樓藏板本(六卷)  
 商務印書館印本  
 1916年石印本  
 民國間上海瑞章書局石印本  
 上海錦章書局印本  
 1956年 人民衛生出版社影印本(與『時方妙用』合訂)  
 『南雅堂醫書全集』  
 『公餘醫錄』

⑬ 『景岳新方砭』

清代的 嘉慶 7年( 1802年)에 완성된 책으로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陳修園이 景岳이 스스로 創方한 186 首의 新方을 가지고 여진히 補, 和, 攻, 散, 寒, 熱, 固, 因의 八陳으로 나누었다. 전서는 『傷寒論』 및 『神農本草經』 등의 경전의 要旨를 따라 辨證論治와 理法方藥과 藥物加工炮制 등의 方門을 186방에 걸쳐 두루 評하였으니 주장한 내용이 融通성이 있어서 실제와 絶실히 들어맞아 당시의 溫補의 弊端에 鍼砭을 가하여 신랄히 비판하였다. 그러나 『景岳新方』에 대해서 지나치게 僻하고 疇찬은 적고 심지어는 어휘의 운용에 있어서 僻격하고 적절치 않은 부분이 보인다.

陳修園의 醫學사상은 徐靈胎와 비슷하여 復古思想이 매우 두드러졌으니 『景岳新方砭·小引』에서 이르길 “徐靈胎有醫貫砭一書 爲趙氏之荒唐不足責 呂氏負一時之望而嘉之 卽流毒無有已時 猶賞道之罪大于爲盜者 則向者之新方註解 豈容好存乎 因效徐靈胎例 著新方砭四卷 知者必于矛盾處鑿余之苦心焉”<sup>30)</sup>이라 하여 徐靈胎는 『

醫貫砭』을 지어 전적으로 趙獻可를 공격했는데 陳修園도 역시 『景岳新方砭』을 지어 전적으로 張景岳을 공격하였다<sup>31)</sup>.

『景岳新方砭』의 現存하는 主要版本은 아래와 같다<sup>32)</sup>.

『陳修園醫書』諸種本  
 清 道光10年 庚寅(1830年)刊本  
 清 光緒9年 癸未(1883年)仁和葛氏刊『嘯園叢書』本  
 宏道堂藏板刊本  
 『陳修園醫書72種』單行本  
 清 光緒22年 丙申(1896年)上海珍藝書局鉛印本  
 民國間商務印書館鉛印本  
 待鑒定本

⑭ 『傷寒直方歌括』

清代的 道光 21年 辛丑(1841年)에 완성되었으며 全書는 6卷으로 구성되었으며 14篇에 96首의 歌括로 되어 있다.

全書는 六經으로 綱을 삼아 每 篇에 우선 『傷寒論』의 主要 條文을 精選하여 六經에 대한 涵義와 辨證과 治療의 大法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이후에 按語의 形式으로 다시 湯方의 應用價値를 설명하였다.

本書와 『長沙方歌括』은 모두 進수원이 『傷寒論』의 湯方의 知識을 普及하기 위하여 著作한 것으로 兩書는 歌括의 여러 목차와 歌詞內容이 不同함을 제외하고는 兩書의 編制方式과 主要 思想의 方面에 있어서는 각기 證점을 두는 바가 있었으니 『長沙方歌括』은 『傷寒論』의 原湯의 先後次序로 기본을 삼아 編制하였는가 하면

30) 林慧光, 上揭書. p. 964.

31) 洪元植·尹楊烈, 增補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p.445.

32)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3154.

本書는 條文에 拘애함이 없이 方을 같은 類로 나누는 形式으로 編制되었다. 즉 『長沙方歌括』은 臨證應用에 重點을 두었고 『傷寒直方歌括』은 理論을 闡明함에 重點을 두었으니 兩書는 각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보완하는 부분이 있다.

『傷寒眞方歌括』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sup>33)</sup>.

『陳修園醫書』諸種本

『公餘醫錄十六種』本

清 道光21年 辛丑(1841年)抄本

清 道光28年 戊申(1848年)陳廷夢抄本

清 咸豐9年 己未(1859年)三山林氏校刊本

清 光緒元年 乙亥(1875年)南雅堂刊本

清 光緒22年 丙申(1896年)珍藝書局鉛印本

清 光緒31年 乙巳(1905年)南務印書館鉛印本

清 光緒34年 戊申(1908年)寶慶經元書局校

刊本

味根齋刻本

三味書局刻本

湖南醫局刻本

清刻本

1916年 上海廣益書局石印本

1935年 上海三星書局石印本

按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進行하여 各 條文間의 상호관계와 구별을 설명하였고 아울러 변증의 要점을 제시하여 배우는 자가 능히 그 내용을 貫通하고 融合하여 그 要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本書는 陳修園이 평생동안 『傷寒論』을 연구하여 心得한 내용들이 集大成되어 있는 책으로 상당한 학술적인 價値를 갖추고 있어 『傷寒論』을 공부하는데 있어 參考書가 된다.

『傷寒醫訣申解』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sup>34)</sup>.

『陳修園醫書』諸種本

清 咸豐6年 丙辰(1856年)刻本

清 道光間刻本

清 光緒18年 壬辰(1892年)圖書集成印書局鉛印本

清 光緒29年 癸卯(1903年)湖南書局刻本

清 光緒31年 乙巳(1905年)南務印書館鉛印本

清 光緒32年 丙午(1906年)吳閩醫學會印本

清 光緒34年 戊申(1908年)寶慶經元書局校刊本

味根齋刻本

1916年 上海廣益書局石印本

1936年 上海大文書局鉛印本

1958年 上海科技衛生出版社鉛印本

⑮ 『傷寒醫訣申解』

清代의 道光 1年 辛巳(1821年)에 완성되었으며 全書는 모두 6卷으로 구성되었다.

陳修園의 晩年の 著作으로 이는 진수원이 『傷寒論』을 研究함에 있어서 精華가 되는 書籍이다. 六卷은 六經排례로 按하여 全書를 『內經』의 理論에 根據하여 標本中氣와 經絡學說을 基礎로 삼아 종합적으로 演繹하는 方法을 이용하여 『傷寒論』 各 篇의 條文을 파악하고 不同한 내용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약간의 단락을

⑯ 『十藥神書注解』

清代의 咸豐 6年 丙辰(1856年)에 완성되었으며 一卷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陳修園이 元代 葛可久의 저작인 『十藥神書』를 闡發한 것으로 葛可久의 原著에는 다만 結核(癆症)의 處方 十條만을 나열하였을 뿐인데 陳修園은 개인의 臨床經驗을 결합하였고 每方및 周楊俊의 舊注 후에 評注를 더하였으니 자신의 독특한 見解를 덧붙여 原書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으며 後學 林壽萱 또

33)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573.

34)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571.

한 書中 方劑에 韻律을 달아 歌括로 만들어 더욱 책을 완전하게 하였다. 『十藥神書』는 虛損으로 인한 癆症을 論述한 專門書籍으로 書中에 癆症 處方 10條를 열거하여 후세에 癆症을 다스림에 반드시 쫓아서 참고할 만한 法이 있으니 陳修園은 原著의 基礎위에서 자신의 臨床經驗을 결합하여 『十藥神書注解』를 완성하였으니 그의 癆症을 다스리는 見解를 깊이 알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sup>35)</sup>.

『十藥神書注解』의 現存하는 主要板本은 아래와 같다<sup>36)</sup>.

- 『陳修園醫書』
- 清 咸豐7年 丁巳(1857年)文奎堂鐫本
- 清 味根齋刻本
- 清 敦厚堂刻本
- 湖南醫局刻本(附『靈素集注切要』2卷)
- 清 光緒15年 己丑(1889年)千頃堂刻本
- 清 光緒18年 壬辰(1892年)上海圖書集成書局鉛印本
- 清 光緒22年 丙申(1896年)珍藝書局鉛印本
- 陳修園醫書』21種의 單行本
- 1956年 人民衛生出版社影印本

以上の 16種의 著作은 陳修園이 一生동안 醫學을 研究한 脈絡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으니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內經』에 대한 연구서는 『靈素節要淺注』가 있고, 『傷寒論』에 대한 연구서는 『傷寒論淺注』, 『傷寒眞方歌括』, 『長沙方歌括』, 『傷寒醫訣串解』가 있으며, 『金匱要略』에 대한 연구서는 『金匱要略淺注』, 『金匱方歌括』이 있으며, 『神農本草經』에 대한 연구서는 『神農本草經讀』이 있으며, 일종의 醫學入門書로 의학의 啓蒙普及에 관한 저서로는『

醫學實在易』, 『醫學三字經』, 『時方歌括』이 있으며, 綜合醫學書籍으로는 『醫學從衆論』이 있고, 婦人科 醫書로는 『女科要旨』가 있으며, 批評書로는 『景岳新方砭』이 있다.

陳修園의 醫學 著書는 16種에 그치지 않으나 유감스럽게도 以上の 16種을 제외하고는 書目에는 보이거나 出版된 刊本이 없고 혹 刊行本이 있어도 이름이 붙어있지 않으니 의문스러운 점이 심히 많다. 예를 들면 『醫醫偶錄』은 일찍이 『珍本醫書集成』에 더하여져 있었고 『長樂縣志』에도 또한 이 책의 이름이 있었다. 다만 『醫醫偶錄』과 『筆花醫鏡』(道光 4年 江涵暎 著)은 그 내용이 거의 같았으니 吳去疾이 일찍이 이것에 대해 말하기를 “海上에서 나온 후 다시 『筆花醫鏡』과 충분히 비교하여 보니 같은 부분이 열중 아홉이었다”라고 하였다<sup>37)</sup>. 즉 『珍本醫書集成』에 실린 『醫醫偶錄』은 序, 凡例, 卷一, 識一字便爲醫說, 張飛鸞運氣不足憑說과 四卷의 卷末의 附錄인 平人延年要訣六則을 제외하고는 그 正文 내용이 『筆花醫鏡』과 서로 같았고 단지 次序만이 달랐다. 그리고 이상의 16種을 제외하고 또한 18種, 23種, 32種, 48種, 60種, 70種, 72種 등의 각기 다른 板本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장사꾼이 謨利하기 위해 마음대로 湊集한 것이므로 별다른 의의는 없다.

### 3. 學術淵源

(1) 『內經』을 존중하고 仲景을 法하였다.

『醫學三字經·醫學原流』에서 말하기를 “醫學의 시작은 岐伯과 黃帝에서 根本하여 『靈樞』, 『素問』을 지었고 『難經』이 나와 더욱 盛大해졌다. 漢末에 南陽인 仲景이 있어서, 六經을 辨하고 聖道를 彰하여 『傷寒論』을 짓고 『金匱要略』를 남겨 의학을 연구하는 방법을 드리우고 교량의 역할을 하였다.”<sup>38)</sup> 라고 하여 한의

37) 林慧光, 上揭書. p.1100.

35) 卓家和, 從『十藥神書注解』探討陳修園治癆的見解, 福建中醫藥, 1992년 3期, p.39.

36)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3160.

학의 이론체계의 형성은 『內經』과 『難經』에서 출현하였음을 알렸고 『神農本草經』과 『傷寒論』을 통해 臨床用藥과 辨證論治의 기초를 다졌으니 후세의 各家學說流派의 나뉨은 모두 經義에 근본을 두고 여기에 자신의 臨床經驗을 토대로 하여 여러 流派들이 형성되었으니 醫經이 근원이 되고 後世各家學說은 지류가 됨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陳修園은 『內經』을 매우 尊重하고 崇尚하여 “무릇 醫家와 『內經』과의 관계는 마치 儒家와 四書와의 관계와 같아서 日月과 江河가 萬古에 廢하지 않는 것과 같다.”<sup>39)</sup>라고 강조하였으며 『內經』을 받들어 법도로 삼아 변하지 않는 이치라고 인식하였다.

陳修園은 당시의 의사들이 岐伯과 黃帝의 本旨를 멀리하고 臨證에 단지 소량의 套方으로서 病을 統治하는 폐단을 바라보며 또한 큰소리로 근심하며 단식하며 말하길 “理致를 內經에서 본받지 아니하고 治法을 仲景에 익숙히 하지 않으면 비록 우연히 맞더라도 또한 변하지 않는 법도가 아니다.”<sup>40)</sup>라고 하여 陳修園은 仲景의 學說을 지극히 崇尚하였으니 醫家에 있어서의 仲景은 儒家에 있어서의 孔子와도 같다고 인식하였다.

(2) 가까이로는 張志聰과 高士宗을 계승하였다.

陳修園은 오직 張志聰과 高世栻 두 사람에게 진심으로 경탄하여 『醫學三字經·醫學源流第一』에서 말하기를 “大作은 오직 錢塘 밖에 없다.”<sup>41)</sup>라고 하였고, 注에서 말하기를 “張志聰의 호는 隱庵이고 高世栻의 호는 士宗으로 둘 다 모두 浙江省 錢塘 사람으로 康熙년대에 二公은 동시대에 醫學을 배웠고 世態와 더불어 않고

오로지 문을 닫고 책을 저술하여 후대에 道를 傳함을 계획하였다. 注를 한 바의 『內經』, 『本草經』, 『傷寒論』, 『金匱』 등의 책은 각각 手眼을 출하여 前人이 未發함을 發하였으니 漢代 이후에 제일의 책이다.”<sup>42)</sup>라고 하였다.

陳修園의 學術研究上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사고의 맥락과 방법이 張志聰이 학문하는 방법과 더불어 일치하는 바가 많으니, 예를 들면 張志聰이 侶山堂을 열어 同學과 門人 수십 사람에게 講學하였고 공동으로 醫學을 깊이 연구하여 차례차례 『黃帝內經素問集注』, 『黃帝內經靈樞集注』, 『傷寒論集注』, 『金匱要略集注』, 『傷寒論宗印』, 『本草崇原』, 『侶山堂類辨』 등의 책을 著作하여 『內經』, 『傷寒論』을 연구한 것과 陳修園이 嵩山井上草堂에서 講學하고 아들과 손자 및 門人 수십 人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醫學經典著作을 研究하고 整理한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저작의 품격이 유사하였다.

『靈素節要淺注』는 대략 張志聰의 說을 취하고 간간이 자신의 說을 실었으며 『傷寒論淺注·凡例』중에 말하길 “오직 張志聰과 張令韶 二家만이 원문을 따라 註解를 하였고 비록 간간이 억지스러움이 있으나 五運六氣, 陰陽交合之理를 천발하여 仲景自序의 『內經』九卷, 『陰陽大論』을 撰用하였다는 내용과 合하여 내가 가장 탄복한 것이 되었다. 지금 二家의 章節을 구분함을 照하고 원문에 襯法을 이용하여 小注를 달고 二家의 說을 위주로 하였다.”<sup>43)</sup> 라고 하였다. 『傷寒醫訣串解』는 張志聰의 “六經氣化說”의 기초상에 자신의 뜻을 發揮하여 이루어졌고 『神農本草經讀』은 오로지 葉桂와 張志聰의 兩家의 뜻을 취하였고 간간이 徐大椿의 說을 채용하여 자신의 뜻을 發明하였다.

이렇듯 陳修園이 의학을 연구하는 역사적인 연원을 종합해보면 그를 ‘儒醫’라 일컬을 수 있으니 程子와 朱子의 理學을 근본으로 학문을

38) 陳修園, 醫學三字經, 陳修園醫書五十種. p.37.

39) 林慧光, 陳修園醫書全集. p. 3.

40) 林慧光, 上揭書. p.1101.

41) 陳修園, 醫學三字經, 陳修園醫書五十種. p.39.

42) 陳修園, 上揭書. p.39.

43) 陳修園, 傷寒論淺注, 陳修園醫書五十種. p.425.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陳修園의 학풍은 尊經崇古의 特徵이 있으며 唐宋의 후대의학에 대하여는 신중히 分析하는 태도를 가졌다. 이러한 陳修園의 尊經復古의 醫學思想은 당대의 醫學의 기틀을 다시 振作하게 하여 明末以來로 형성된 의학의 基礎理論을 경시하는 平庸와 溫補의 藥을 남용하는 弊端을 革新하였으니 실로 尊經을 基本으로 하여 실제 임상에도 응용을 하는 실용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清代의 의학발전을 더욱 부추키게 되었다.

### III. 結 論

清代 尊經學派 醫家인 陳修園의 生涯와 醫學淵源을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陳念祖의 字는 修園또는 良友이며 號는 慎修로 福建省 長樂縣의 江田鄉 溪眉村 사람으로 清代 1753年(乾隆 18年)에 出生하여 1823年(道光 3年)까지 살았다. 清代의 저명한 醫學家로서 學識이 淵博하고 醫理가 精密하여 醫學理論家이면서도 풍부한 臨床經驗을 갖춘 臨床家로서 一生동안 많은 의학보급서적을 집필하였다.
2. 陳修園의 思想은 尊經復古적인 기풍이 짙어 神農과 黃帝와 仲景을 尊重하여 『內經』, 『神農本草經』, 『難經』, 『傷寒論』, 『金匱要略』등의 聖經을 중심으로 모든 이론의 기초를 삼아 尊經에 의거한 저술을 하였다. 陳修園醫書十六種(『傷寒論淺注』, 『傷寒眞方歌括』, 『長沙方歌括』, 『醫學三字經』, 『醫學實在易』, 『醫學從衆錄』, 『傷寒醫訣串解』, 『靈素節要淺注』, 『金匱要略淺注』, 『金匱方歌括』, 『神農本草經讀』, 『景岳新方砭』, 『女科要旨』, 『時方妙用』, 『時方歌訣』, 『十藥神書注解』)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요저작이다.

3.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內經』에 대한 연구서는 『靈素節要淺注』가 있고, 『傷寒論』에 대한 연구서는 『傷寒論淺注』, 『傷寒眞方歌括』, 『長沙方歌括』, 『傷寒醫訣串解』가 있으며, 『金匱要略』에 대한 연구서는 『金匱要略淺注』, 『金匱方歌括』이 있으며, 『神農本草經』에 대한 연구서는 『神農本草經讀』이 있으며, 일종의 醫學入門書로 의학의 啓蒙普及에 관한 저서로는 『醫學實在易』, 『醫學三字經』, 『時方歌括』이 있으며, 綜合醫學書籍으로는 『醫學從衆論』이 있고, 婦人科 醫書로는 『女科要旨』가 있으며, 批評書로는 『景岳新方砭』이 있다.

4. 陳修園의 學術淵源은 尊經崇古의 특징이 있어 위로는 『內經』을 尊重하고 仲景을 法하였으며, 가까이로는 張志聰과 高士宗을 이었다.

### 參 考 文 獻

1. 姜春華 編著, 歷代中醫學家評析,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2. 林慧光 主編, 陳修園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 裘沛然 丁光迪 主編,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4. 裘沛然 主編, 中醫歷代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5. 陳修園, 靈素節要淺注, 陳修園醫書五十種, 臺北, 新文豐出版有限公司, 1979.
6. 徐靈胎 著, 林直清 校勘,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1969.
7. 陳修園, 醫學三字經, 陳修園醫書五十種, 臺北, 新文豐出版有限公司, 1979.
8. 傅維康, 中國醫學史, 上海中醫學院出版社, 上海, 1990.
9. 陳修園, 醫學從衆錄, 陳修園醫書五十種, 臺

- 北, 新文豐出版有限公司, 1979.
10. 陳修園, 金匱方歌括, 陳修園醫書五十種, 臺北, 新文豐出版有限公司, 1979.
  11. 陳大舜 主編, 中醫各家學設,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9.
  12. 金容辰외 9명, 各家學設(中國篇), 대성의 학사, 서울, 2001.
  13.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14. 朱震亨, 方廣 編註,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90.
  15. 陳修園, 金匱要略淺注, 陳修園醫書五十種, 臺北, 新文豐出版有限公司, 1979.
  16. 洪元植 編著,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17.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4
  18.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서울, 大星文化社, 1995.
  19. 陳修園, 傷寒論淺注, 陳修園醫書五十種, 臺北, 新文豐出版有限公司, 1979.
  20. 陳修園, 長沙放歌括, 陳修園醫書五十種, 臺北, 新文豐出版有限公司, 1979.
  21. 修園, 醫學實在易, 陳修園醫書五十種, 臺北, 新文豐出版有限公司, 1979.
  22. 王琦 編著, 素問今釋, 貴州, 人民出版社, 1981.
  23. 陳修園, 神農本草經讀, 陳修園醫書五十種, 臺北, 新文豐出版有限公司, 1979.
  24. 趙獻可 著, 醫貫,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25. 張景岳, 類經(上), 서울, 대성문화사, 1982.
  26. 張景岳, 景岳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8.
  27. 陳修園, 時方歌括, 陳修園醫書五十種, 臺北, 新文豐出版有限公司, 1979.
  28. 項長生 主編, 汪昂醫學全書·素問靈樞類纂約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9. 高欠鑫 主編, 汪石山醫學全書·續素問鈔,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0. 陳修園, 傷寒眞方歌括, 陳修園醫書五十種, 臺北, 新文豐出版有限公司, 1979.
  31.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中),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32. 李經緯 林昭庚 主編, 中國醫學通史(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9.
  33. 陳修園, 十藥神書注解, 陳修園醫書五十種, 臺北, 新文豐出版有限公司, 1979.
  34. 卓家和 鄭大正, 從『十藥神書注解』探討陳修園治癆的見解, 福建中醫藥, 1992년 3期.
  35. 劉德榮, 『醫學從衆錄』論治內科雜病拾萃, 福建中醫藥, 1992年 3期.
  36. 王自強, 陳修園的脾胃觀, 福建中醫藥, 1992年 第3期.
  37. 楊玉岫, 陳修園婦科學術思想探析, 新中醫, 1996年 第12期.
  38. 劉祖貽 孫光榮 主編, 中國歷代名醫名術,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39. 陳修園, 女科要旨, 陳修園醫書五十種, 臺北, 新文豐出版有限公司, 1979.
  40. 李正來 著, 金匱要略譯解精設, 서울, 泰昌出版社, 1992.
  41. 陳修園, 時方妙用, 陳修園醫書五十種, 臺北, 新文豐出版有限公司, 1979.
  42. 洪元植·尹暢烈, (중보)중국의학사, 서울, 一中社, 2001.
  43. 陳修園, 景岳新方疔, 陳修園醫書五十種, 臺北, 新文豐出版有限公司, 1979.
  44. 鄭林主 主編, 張志聰醫學全書·傷寒論宗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45. 陳修園, 傷寒醫訣申解, 陳修園醫書五十種, 臺北, 新文豐出版有限公司, 1979.
  46.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47. 俞慎初 著, 中國醫學簡史, 福建科學技術出版社, 福建, 1983.